

30대 초반 男 실직 급증... 결혼은 먼 얘기

9월 취업자 1년전보다 11만2천명 줄어...여성 감소의 두배 늘어난 실업자 77%가 고졸 이하...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A(32·남)씨는 최근 퇴사해 새 직장을 구하고 있다. 얼마 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친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급여나 근로 여건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기란 힘든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5년 전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B(34·여)씨도 고민이 많다. 아이 양육비도 많이 들고 해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하니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직이 아닌 곳에 취업하기에는 경력이 아깝고, 그냥 놀자니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인의

소개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올해 하반기 들어 30대 초반(30~34세) 청년층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여건이 악화되자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젊은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30~34세 실업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30대 초반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고용감소가 더해져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

는 ‘인구 효과’만 두드러졌지만 올해 4월부터는 고용효과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인구 효과보다 고용 효과로 인한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컸다.

9월 기준 30대 초반 남성 취업자 수는 11만2000명 줄어 여성(5만6000명) 감소 인원보다 두 배 많았다. 인구 효과를 제외한 고용 감소는 남성이 4만8000명, 여성이 2000명으로 24배 격차를 보였다.

30대 초반 남성 중에서도 고졸 이하 위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 9월 30대 초반 남성 실업자 증가 인원 1만3000명 가운데 1만명 가량이 고졸 이하였다.

또 30~34세 여성 실업자는 7,8월 증가하다가 9월 들어 감소했지만 남성 실업자는 7~9월 3개월 동안 매달 1만명 이상 늘

었다. 또 9월 30대 초반 실업자의 95.0%는 이전에 직장을 다녔던 ‘전직 실업자’였다. 여기서 실직 기간 1년 미만인 사람 비중은 74.7%였는데, 이들의 퇴사 사유는 직업 여건 불만족(39.8%), 개인·가족적 이유(23.0%), 임시직·계약 만료(10.8%)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고용 사정도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직과 취업난의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30대까지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일수록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애착이 약하고 더 나은 회사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9.65 (+12.12)	↑ 금리 (국고채 3년) 1.69% (+0.05)
↑ 코스닥 627.83 (+10.40)	↓ 환율 (USD) 1169.20원 (-1.40)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상담회에서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 산단 입주기업 맞춤형 수출컨설팅

산단공·광주·전남본부 상담회...중기 수출멘토단 참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광주 시 서구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광주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이 참여해 활기를 띠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수출 희망국별 거래선 발굴이나 현지 비즈니스 관행, 해외법인 설립 등에 대한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은 중국과 아세안, 북중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대기업 지사장 출신과 현지 법무전문가 등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명심메디칼 송준기 대표이사는 “원적외선 온열기라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수출 애로를 겪어 왔다”며 “산단공의 도움으로 중동과 북미 진출에 대한 1대 1 맞춤형 수출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윤철 한국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은 “국내·외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전남 쌀 직불금 1751억원 오늘부터 지급

전남도는 오는 17일부터 각 시·군·구를 통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751억원(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청자는 13만321농가로, 이들이 신청한 면적은 17만1666ha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농가수는 2321농가가 늘고 면적은 334ha 감소했다.

전남도는 도시지역 직불금 신청자, 귀농인구가 늘면서 농가수는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논농사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8383억원이다. 쌀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연 2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지급 실적(8422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전체 농가수(108만7000호)의 72.9%인 79만3711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1.2%) 늘었다. 대상 면적은 지난해 전체 논 면적 90만8000ha의 92.2%인 83만7000ha로, 전년보다 0.8%가량 감소했다. 올 추가지 진행된 사전 점검을 통해 직불금 지급 부적격으로 판정된 농지 등이 반영된 것이다. /윤현식기자chadol@

“마세라티 첫 SUV 시승하세요” 르반떼 20일까지 이벤트



마세라티가 브랜드 최초의 SUV ‘르반떼’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광주 등 전국 10개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는 22일 국내 출시를 앞둔 르반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차량 시승 또한 전시장에서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시장을 방문해 상담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르반떼 출시를 기념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르반떼와 함께 하는 ‘패밀리 포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마세라티의 첫 SUV 르반떼는 오는 22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美 에너지신사업 시장 진출...북미 진출 발판

버지니아주와 MOU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버지니아주와 에너지신사업 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한전과 미국 버지니아주는 MOU를 통해 버지니아 주 정부 및 소재 기업들과 협력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신사업 10개 분야·공동 사업개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버지니아 주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보

유와 지정학적 위치로 AREVA, Dominion Power, Grid Point, Opower, PEM-CO 등 400개가 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최신 기술과 석탄, 석유 등 전통 연료를 바탕으로 한 발전 산업까지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MOU는 한전이 미국 주 정부 대상으로 메릴랜드 주에 이어 두 번째 체결하는 것으로 양측은 11월내 위킹그룹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6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마이크로그리드 사이트를 준공하여 북미시장에 한전의 에너지신사업 기술력을 입증하고 북미시장 사업진출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3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여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기반을 확보했다.

조환익 사장은 “미국 에너지신사업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선진 북미 전력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황금맷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CES KCTC G마크 환경부 동부화재

상/담/문/의
(062)515-1144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한국방수연구소 연구원 고시 제2009-24호에 저지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바이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난 엔디니아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